유럽각국의등산안내문에도 한글이등장

〈續〉 김 성 이 〈성심여대교수 사회사업학〉

배운것 많은 스위스

이에 반해 이탈리아에서는 곳곳에서 쓰레기나 휴지가 눈에 띄었다. 관광안내원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수천년된 고적을 잘 보존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쓰레기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스위스가 이렇게 깨끗하고 부지런한 나라가 된 이면에는 후세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숨어 있다.

한 예로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의 암벽에는 창에 맞아 신음하는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 사자상은 프랑스 혁명 때 명군으로부터 루이16세를 보호하려다 죽어간 3백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리는 기념물이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죽어간 성스러운 죽음은 아니지만, 가난한 조국을 위해 팔려 갔던 조상의 죽음을 숨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길이 기억케 하려는 스위스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淨化特輯

부지런한국민이 역시잘산다

○… 10여년 전만 해도 「전쟁의 나라」…○
○… 「고아의 나라」로 알려져 온 한국이…○
○… 이제는 「불타는 나라」「성장하는 나…○
○… 라」로 부각, 유럽 어느곳에서나 한국…○
○… 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져 가고있…○
○… 음을 본 우리 학생들은…. …○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유럽 어느곳에서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전쟁의 나라」「고아의 나라」로 알려져 온 한국이 이제는 「불타는 나라」「성장하는 나라」로 부각되고 있었다. 1988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럴것이라면서 전혀 놀라는 기색없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우리 국력의 성장은 유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지방도시에서도 현대자동차의 「포니」 광고와 대리점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에서는 한국인 판매원이 있었으며 등산 안내문에서도 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런던의 템즈강가나 파리의 센강가 또 스위스의 산정에서나 로마의 성곽에서도 관광객 속에 섞여 있다보면 쉽게 한국말을 들을 수 있었다. 관광객 수로는 국민학생까지 유럽관광을 하는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으나 이제 한국은 유럽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한 국가임을 알았을 때 유쾌한 기분을 가눌 수 없었다.

또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학생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더욱 기뻤다. 관광안내원이 인솔하는 각국의 상점에는 갖가지 상품이 현란하게 손님의 눈을 끌고 있었으나, 학생들은 유명상품의 옷을 보고도 우리나라 보다 값이 월등 비싸니 살 필요가 없다느니, 고급제품 등을 보고도 『사치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그만 떠나서 다른 관광이나 하자』고 했다. 개중에 물건을 많이 사는 학생이 있으면 은연중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하며, 충고하는 태도를 갖은 학생들이 많았다. 또 시간절약을 위해 아예 일정에서 쇼핑을 빼버리자는 학생도 있었고, 쇼핑시간에 대충 눈요기만 하고 일찌감치 버스에 돌아와 쉬며 그동안의 여행을 정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족한 단체정신

학생들의 조국에 관한 애국심도 투철했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자발적으로 주위의 나뭇잎이나 휴지를 주워 묘소 주변을 깨끗이 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광복절을 맞자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무척 진지했다. 학생들 중에는 자유토론 시간에 일본을 앞지르는 경제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단체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숙박을 하고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아침 출발의 경우를 보더라도 출발예정시간에 버스에 승차하여 기다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30분쯤이나 지나서 어슬렁거리며 걸어나오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대표가 여러번 시간을 지키자고 호소했으나 언제나 버스는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했다.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풍조를 학생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씁쓸했다. 또한 늦게 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주위 학생들이 주의를 주지 않고 그럭저럭 넘어가는 점도 불유쾌했다. 우리 사회에도 「평등」이란 개념은 극도로 강조되어 왔으나 위계질서 속에서 함께 일한다는 정신이 부족되어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3주간의 단체생활을 통하여 서서히 단체개념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즉 처음에는 예정시각보다 30분 이상씩 걸려서야 출발하던 것이 마지막 주에 가서는 30분이내로 단축되었다. 젊은이들에 대한 집단훈련의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지면 지금의 개인주의는 많이 시정될 것으로 보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국

3주간의 견학연수과정이 끝나는 날 저녁에는 모두 모여서 전체평가회의를 가졌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여행기간중 유럽 각국의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재조명하며 생각하게 되었고, 조국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또 이번 여행이 결코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어학연수에서부터 견학연수에 이르기까지 괴로움도 많았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여행 기회를 주신 부모님과 사회에 감사한다면서, 아쉬웠던 점은 너무도 짧은 시기에 많은 곳을 봄으로 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번 여행은 유럽 전반에 걸친 폭넓은 오리엔테이션 교육이라 생각되면, 앞으로는 각국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는 깊이있는 여행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귀국길에 오르면서나는 일부 몇몇 학생들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시각으로 해외연수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조급한 마음에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해외연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바꿔야 할 것임을 확신했다. 반면 해외연수도 이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자식이 귀여우면 여행을 시키란」는 옛말에 그릇됨이 없다는 것을 재삼 인식했다.

가로쓰기와 한글만쓰기

○… 국민학생도 읽도록 만들어져야 하
○… 는 것이 신문이다. 대학을 나와도 신
○… 문에 나오는 한자를 거의 읽지 못
○… 한다면,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 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신
○… 문을 만드는 사람도 한자를 쓰는 것
○… 이 아니라 그리다시피 해야 하고…

〈정화지 2000년 지에서 발췌〉

한글날이 들어있는 이 10월에 오늘의 우리 신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공석이나 사석에서 흔히 듣는 얘기는 광복 이후 신문처럼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도 많지 않다는 꾸짖음이다. 물론 발전이야 했다. 광복 직후 타블로이드 2면짜리 지면이 신문판형 2면, 4면, 8면을 거쳐 12면으로 늘어났고 컬러신문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발전은 발전이다. [illegible]

그러나 신문에 대한 꾸짖음은 [illegible]

[illegible]

黃 芪

連載 栽培教室

新規會員을 爲하여

황기 = (黃芪)

○學名: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藥用部: 뿌리
○效用: 制汗, 强壯

藥으로 사용되며、腫瘡에 새살이 나오게 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自汗、盜汗、허약、四肢浮腫、카리에스등 병에 쓰인다.

1、性 狀

콩과에 속하는 多年性草本이다. 줄기의 높이는 90cm내외이고 가지가 많으며 홀수의 깃끌겹잎(奇數羽狀複葉)이다. 7∼8월에 잎어깨에서 꽃대가 나와서 나비 모양의 꽃은 노랑꽃이 피며 꼬투리로 맺고 그 속에 黃褐色의 둥글고 납짝스런 씨를 結實한다.

2、栽培法

1、栽培適地

우리나라 각지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토질은 表土가 깊고 排水가 잘 되는 粘質壤土에서 재배하는 것이 곧고 긴 품질 좋은 뿌리를 수확할 수 있으므로 가장 適地이다. 排水가 좋지 못한 土質에서는 여름 장마비 올 때에는 뿌리가 썩는 경향이 있으며、砂土質에서는 莖葉의 성장은 좋으나 뿌리가 곧게 내려가지 못하고 잔뿌리가 많이 생기어서 品質上 좋은 것을 수확하기 어려우므로 다같이 피하는 것이 좋겠다.

2、繁 殖

㉮採種: 種子로서 번식한다. 當年生포기에서도 결실이 되므로 채종할 수 있으나 發芽率이 좋지 못하고 발아후의 생육도 좋지 못하므로 될 수 있으면 2년생 이상의 건실한 포기에서 採種한 것을 취하는 것이 좋다.

㉯採種時期: 서울지방에서는 4월상순경에 뿌리는 것이 가장 適期라고 보며 그보다 너무 일찌기 파종하면 발아후 된서리(濃霜)의 피해로 인하여 凍死하는 수가 있다.

㉰播種方法: 밭을 깊이 갈아서 20cm내외의 두둑을 짓고 옆으로 20cm間隔으로 잔골을 치고 씨를 줄로 뿌리는 것이 보통이나 [illegible] 地方에서는 두둑을 짓지 않고 이랑 사이 30cm 내외를 두고 골을 하나 쳐서 씨를 뿌리기도 하나 肥培管理에 불편할 뿐더러 排水가 좋지 못하고 除草등 작업시에 뿌리 옆을 밟게 되어 發育에도 지장이 있다. 파종후 흙을 1・5cm쯤 덮어주며 짚 같은 것을 덮어줄 필요는 없다.

㉱播種量: 파종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나 줄로 뿌릴 때에는 種子 1・8ℓ 내외가 필요하고 흩어 뿌리면 2・4ℓ 내외가 필요하다.

3、管 理

播種후 10일내외가 되면 發芽한다. 發芽후 심히 密生되지 않는 한 솎아주지 않고 그대로 키우는 것이 보통이며 씨가 드물어서 가지를 많이 치면 [illegible]

4、施 肥

밑거름으로 堆肥 1、000kg、過石 40kg、草木灰 60kg내외를 시비하고、웃거름으로는 成長狀態를 보아서 생육이 좋지 못할 때에 人糞尿 또는 複合肥料를 약간 시비토록 한다. 이 식물은 콩과식물이므로 질소성분은 주지 않아도 뿌리의 根瘤의 作用으로 공중의 질소성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질소성분이 너무 많을 때에는 莖葉만이 무성하고 뿌리의 발육이 좋지 못하다. 늦은 가을에 莖葉이 枯되면 据置할 것은 黃葉을 뿌리 6∼9cm 위를 낫으로 베고 그대로 월동을 시키면 [illegible] 이듬해 봄까지 [illegible] 등 비료를 봄 밑거름 [illegible]

5、病虫害

㉮진딧물: 5월부터 10월까지 항시 피해를 입히는 害虫인데 발아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잎 뒤에 붙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므로 조금 발생하였을 때에 미리 메타씨쓰톡스등 農藥을 뿌리어 驅虫토록 할 것이며 莖葉이 무성하였을 때에 많이 발생되면 잎 뒷면이 말리어 農藥을 뿌리어도 농약이 잎 뒷면까지 뿌려지지 않아서 효과가 적다. 또 진딧물은 繁殖力이 강하여 며칠 사이에 많이 發生되는 시기도 하므로 항시 圃地를 돌아보고 발생에는 時期를 늦추지 말고 즉시 농약을 뿌려주도록 할 것이다.

㉯굼벵이: 잘 썩지 않은 堆肥를 밑거름으로 시비했다든가 또는 풀을 매어 방치하였을 때에 굼벵이가 생기어서 뿌리를 갉아먹어서 심한 것은 枯死하기도 하며、고사되지 않더라도 상처를 입히어 흔적이 붉어져서 品質을 손상케 하는데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地中殺虫劑인 헵타 알드린 등 農藥을 미리 뿌리도록 할 것이다.

㉰根腐病: 여름 장마비 올 때에 排水가 잘 되지 않는 土質에서 발생하는데 심할 때에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黃芪는 排水가 잘되는 땅에 재배하여야 하며 [illegible] 특히 유의할 것이다.

3、收穫・調製

㉮收穫의 時期: 파종후 2∼3年生을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다. 沖積土 같은 肥沃한 土質에서는 當年에도 뿌리가 상당히 크므로 時勢가 좋을 때에는 수확하기도 하나 뿌리가 길고 굵지 못하여 品質이 좋지 못하며 藥效도 적다. [illegible]

㉯收穫方法: 옆 뿌리가 적고 곧게 내려간 것은 莖葉을 쥐고 힘껏 뽑으면 뿌리가 뽑히므로 어지간한 수확하기에 勞力이 적게 들며 이용하여 뽑기도 하고 대개는 괭이、삽 등으로 포기를 파고 뿌리를 캐어 [illegible]

㉰調製方法: 캔 뿌리는 물에 씻어서 대칼(竹刀) 같은 것으로 껍질을 벗기는데 勞力이 많이 들므로 돌 같은 데에 뿌리를 문질러 껍질을 벗기기도 한다. 뿌리가 건조되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므로 건조되지 않게 땅에 묻어 두든가 물에 담구어 두었다가 벗기는 것이 作業上 유리하며 껍질을 벗긴 것은 멍석 같은 데에 펼쳐 말리는데 短時日에 건조하는 것이 品質上 좋으며 깨끗하여 반 정도 건조되면 손 [illegible]

㉱收穫量: 10a당 2∼3年生은 90kg 내외、3∼4年生은 보통 180kg 내외의 乾根을 수확한다.

〈3면으로 계속〉